

21. 홀아비 밤콩은 그리움이다.

전화가 왔다. 매우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그러나 대면대면한 듯 보였지만, 본론은 얘기하지 않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런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었다. 벌써 두 번째 전화였다. 씨앗이 필요한 것이다. 박물관은 3월과 7월 정기 씨 나눔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나눔을 하진 못한다. 그럴 때는 그냥 선수 치고 나가는 것이 편하다.

- 무슨 씨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 잠깐만요. 제 말씀을 먼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시작하여 듣게 된 사연. 길었다.

그녀는 홀아비 밤콩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전화했다. 조금만 주시면 돌아오는 어버이날 밥 한 끼라도 해드리고 싶다고 했다.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홀아비 밤콩을 그렇게 좋아하셨단다. 아버지가 어머니 생각만 나면 홀아비 밤콩 이야기를 하시니 밥 한 끼는 해드리는 것이 도리 아니냐는 것이었다.

효심이 가상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 사연이 궁금하여 홀아비 밤콩 한 줌을 들고 계재에 나선 것이 포천 씨앗 수집 여행이었다. 가는 김에 포천 군내면에서 오랫동안 홀아비 밤콩을 지키는 이유신 할머니도 찾아볼 겸, 검사검사 옮긴 발걸음이었다.

그런데 어렵게 찾은 이 할머니는 농사는 놓고 지금은 집 앞에 심어 놓은 꽃만 가꾸고 계셨다. 몸이 몹시 아프셨을 때 농사를 놓았으니까 벌써 3년이나 됐다고 했다. 당연히 홀아비 밤콩의 씨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했다. 안타까웠다. 10여 년 전에도 마을에서 유일하게 홀아비 밤콩을 심으셨던 분이었다. 그냥 돌아서기가 짝해서 한참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잡고 내가 위로할 말을 건넬 정도의 숙기가 없을 즈음에서 내가 아쉬워하며 돌아서는 나를 붙잡는다. 할머니는 혹시나 하고 얘기해준다면 건너편을 가리켰다.

50여 년을 이어온 종자를 잃는다는 게 서럽고 아쉬워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등 너머 친구 김영환 할머니께 맡겼는데, 혹시 모르니 가보란다. 그동안 자기도 맡겨만 났지 한 게 없어 미안해 가보지도, 묻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등 너머라 했지만, 자동차로도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찾은 김영환 할머니! 내가 충청도에서 왔다니 기다리던 조카사위로 착각하고 반갑게 대청으로 들인다. 조카사위가 아니면 어때! 다리가 불편하고 눈이 어두워 늦게서야 알아챈 할머니는 낯선 우리를 다짜고짜 손을 잡고 들어간 것이다. 사람이 그리웠던 모양이다.

아!

그녀에게서 홀아비 밤콩을 찾았다. 할머니는 홀아비 밤콩 말고도 여러 콩을 내놨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김영환 할머니. 그녀는 친구와 약속대로 친구가 병원에 가고 없는 동안 홀아비 밤콩을 삼 년 동안 지켰다. 친구가 얼마나 아끼는지 혹여 맡은 동안 튀기가 나올까 봐 옆에다가 다른 콩은 심지도 못했다고 한다. 친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걸음도 느리고 차편도 잘 모르니 기다리고만 있었다.

이제 돌려줄 때가 왔다고 한다. 주섬주섬 콩을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다. 조그만 봉지는 우리 것이고 큰 보자기는 가는 길에 이유신 친구에게 전해주라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이유신 할머니께로 다시 갔다. 그 사실을 알리기도 해야겠고, 이렇게 질긴 인연을 가지고 있는 홀아비 밤콩을 50여 년 전이라 하지만, 도대체 언제 어디서 씨를 구했는지 알

고 싶어졌다. 갑자기 홀아비 밤콩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못할 것 같고 왔다고 괜스레 타박만 하셨지만, 그 타박 속에 짙은 아쉬움이 배어 나왔다. 그래도 얘기보다는 씨앗 간수가 먼저인지 박 할머니가 준 비닐봉지를 쏘아 작은 종지에 넣고 나서야 우리 앞에 앉았다.

- 저기, 별말의 새마을 지도자 박광태라는 분이 있는데, 거기서 얻었지. 내가 젊었을 때는 근동에 많이 심었는데, 그 집 께 유난히 맛이 좋았거든.

그때 종자를 바꿨다. 본래 시집오니 시어머니가 심던 홀아비 밤콩이 있었는데, 박 지도자 맥콩이 실하고 맛도 좋다고 하여 바꾼 것이다.

그날은 사람 찾느라 어지간한 길은 다 다닌 것 같았다. 우리는 주소도 없이 별말 동네를 다 뒤지며 헤매다 극적으로 길가에서 만난 박광태 할아버지. 어디 앉지도 못하고 새마을 도로에서 그를 마주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 없어! 근데 당신들은 그 콩이 이쭈? 있으면 나도 좀 주시구랴. 나도 눈 빠지게 찾고 있으니까.

별말 박광태 할아버지는 정말 새마을 지도자였다. 지금도 자식에게 물려주기는 했지만, 버섯 공장을 세워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새마을 지도자 시절 한때는 마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다고 했다.

콩도 마찬가지였다. 해방 후 연천 파주 포천지역이 콩 주산단지였는데, 연천 파주 지역은 1913년경 일제가 장단 토종을 가지고 육종한 장단 백목이 많이 퍼져 있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포천지역에는 홀아비 밤콩이 대세였다. 워낙 밥맛이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잘살아보자는 일념 아래 의욕을 가지고 소득사업에 매달릴 무렵 국내에서 육종한 “대원”이라는 신품종이 다시 마을에 들어왔다.

콩이 주 소득원이었던 지역인 터라 새마을 지도자인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홀아비 밤콩 대신 신품종 심기를 강권하다시피 했다. 콩을 많이 심던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홀아비 밤콩 종자를 버리듯 필요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는 솔선수범도 보였다. 그때 아마 이유신 할머니도 얻어 심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자 점점 마을에는 ‘대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소득도 나아졌으니 뿌듯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한다.

- 엠병할! 다른 말을 그렇게 잘 들지 덜?

그는 그래도 그럴 줄 몰랐다고 한다. 누군가는 한쪽에 홀아비 밤콩을 심고 있으리라 믿었다고 한다. 들 밥을 먹을 때면 어김없이 밥밑콩으로 들어있었으니 ‘뒤 켜 쪽 밭에는 즈덜 먹을 콩은 심는 줄 알았다’고 한다.

홀아비 밤콩은 사람들이 콩바심을 할 때도 기계를 쓰지 않고 앞마당에 널어 꼭 도리깨 짓을 해서 털었다고 한다. 기계로 털면 편하기는 하지만, 마치 콩 맛까지 털릴까 해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콩이 보이지 않더라. 소득은 얻었지만, 밥상머리 밥맛을 잃었다. 그래서 자신도 몇 년 전부터 홀아비 밤콩을 찾기 시작했는데 기어코 찾지 못했으니 혹시 찾으면 연락을 달란다.

-어르신은 왜 홀아비 밤콩을 찾는데요?

- 미안해서 그렇지. 마치 내가 없애버린 것 같잖어. 나두 죽을라나 보네. 옛 밥맛을 찾는 거 보니... 요즘은 서울 간 늙은 친구들이 가끔 그 콩을 찾네 그려.

혹시 자신 때문에 홀아비 밤콩이 없어진 것은 아닐까 미안해하는 박광태 할아버지에게 콩 몇 알 드렸다.

앵! 이게 왜 댁한테 나와?

놀라는 박 할아버지를 뒤로하고 몇 알 안 되는 콩을 가지고 포천으로 갔다. 전화를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미리 연락했는지 전 씨 성을 가진 아버지라는 분도 미리 와 있었다.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다.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마신 술 한 잔에 벌써 불쾌하게 얼굴이 달아 올라 있었다.

- 맞아! 이게 홀아비 밤콩이지.

뭘, 콩 하나를 보고 이렇게 세 번이나 놀라는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는 홀아비 밤콩이 마치 자신들을 닮았다고 했다. 그들에게는 6·25의 아픔이 있었다. 포천은 6·25 이전과 이후의 경계가 달랐다. 남한에 기대면 북쪽에서 죽이고, 북쪽에 기대면 남쪽에서 죽이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등이 터진 그곳 사람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마치 홀아비 밤콩이 등 터진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콩의 등 트임은 홀아비 밤콩의 특징이었다. 콩도 뵈겠다 확인도 했겠다 점잖게 한마디 거든다.

- 그거 다 우리 집에서 퍼진 거여.

- 하하하. 그래요?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할머니 때문이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심었다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심었는데, 일본 놈들이 장단콩을 만들어 강제로 심어 가져갈 때 홀아비 밤콩은 이미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여간 그때도 자기 할머니는 곳곳이 심었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이 별거 있냐는 것이다.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야 내 거 지키는 게 독립운동이지. 뭐! 옆에 서 있던 따님들이 싱거운 아버지의 허세에 웃었다.

그 후 해방이 되자 다시 콩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박광태 할아버지 말대로면 ‘임자 없는 밭에 돌피 성하듯’ 갈아먹을 거 없는 포천 땅에 그냥 무지로 퍼져나갔던 콩이 홀아비 밤콩이었다고 했다. 그 씨알이 바로 할머니에게서 나간 것이 아니겠냐고 강변하고 있었다.

전 씨 할아버지의 과장되고 흥분된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가 갔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간 홀아비 밤콩을 보더니 심장이 쿵쾅댔던 것이다.

- 그래, 죽은 아내 생각이 날 때마다 홀아비 밤콩이 드시고 싶다면서요?

얼른 드리고 다른 곳으로 수집 가려고 이야기를 서둘렀다. 그러나 그는 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다. 그러니까 그는 젊은 시절 군대 군무관이었는데, 농사를 짓던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종자를 며느리가 이어받아 심기 시작한 콩이 바로 홀아비 밤콩이었다. 늙은 시어머니가 유독 밤밀콩으로는 홀아비 밤콩을 찾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 그런데 다시 신품종이 들어와 바람이 불자 사람들이 또다시 없었지. 난 그때 마누라가 왜 그렇게 홀아비 밤콩에 매달리나 이해가 가지 않았지. 그렇게 우리 마누라가 근근이 심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줬지. 손이 해뻘거든.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군무관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시작하며 가을이면 타작 기계를 사서 포천, 연천, 파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콩 타작을 다녔다. 당시엔 포천지역에 콩 바람이 불어 모든 사람이 신품종을 심기 시작했으니 타작하는 일도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그리고 샀으로 받은 것이 모두 콩이었다. 그러니 콩이 아쉬울 리 없던 그는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해서 부인에게 콩을 심지 못하게 했으나 종자를 팔면 또 어디엔가 두었다가 심고, 없애면 또 찾아서 심었다 한다. 어머니는 남길 게 없어서 먹성을 유산으로 남기셨나 했단다.

그렇게 하길 십수 년, 아내는 얼마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때맞춰 홀아비 밤콩도 없어졌다고 한다. 요즘 들어 지독하게 아내가 생각나는데, 그 앞에 꼭 홀아비 밤콩

이 앞서 생각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남긴 것은 먹성이 아니라 달착지근한 품성을 가진 아내와 홀아비 밤콩에서 풍기는 맛에서 오는 그리움이었던 것은 아닐까.

- 많이는 못 드리니 이걸 가지고 올해 심었다가 가을에 바심해서 드세요.

뭘. 혹시 알아. 부인이 험하게 종자를 나눠줄 때 벌말 박광태 할아버지에게 준 콩이 지금 이 유순 할머니께 가고, 다시 박영옥 할머니에게로 이어져 내게로 왔는지. 그리고 그 콩이 다시 그에게로 가는 것은 어찌면 홀아비 밤콩은 연어를 닮았는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 기쁜 마음으로 돌려주었다.

그는 지금 그 그리움으로 무엇인가 또 꿈을 꾸고 있었다. 홀아비 밤콩을 통해 지역의 특산물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었다.

홀아비 밤콩. 그 이름에서 오는 뉘앙스 자체가 그리움이다. 콩 이름이 홀아비라니! 대체 이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대개 우리 선조들은 씨앗에 이름을 붙일 때는 힌트가 역력하다. 이름 붙이는 이유가 단순했는지, 아니면 후손들이 잇기 쉬워 부르기 쉬운 이름을 붙였는지 이름을 들어만 봐도 씨앗을 유추할 수 있는 이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홀아비 밤콩이란 이름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 토종을 지키는 사람이나 수집을 하는 사람이나 그 이유를 모른다. 누구는 콩대가 두터워 하나만 심으니 그렇게 부른다고 하고, 누구는 꼬투리가 홀로 있어 보여 그렇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그럴듯한 것은 없다.

그리고 보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신품종 속에서도 곳곳이 지켜 온 이유신 할머니가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린 홀아비 밤콩에는 다만 그 콩을 잃어버린 사람의 외로움만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전 씨 할아버지처럼 홀아비가 된 뒤 유독 콩을 좋아하던 아내가 그리워 찾는 콩은 아니겠지?